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운영 개선에 대한 담당자 인식조사 연구*

An Investigative Study of the Awareness of Person in Charge on the Improvement of Extended Support Project Operation for the Public Libraries' Opening Hours

노 영 희 (Younghee Noh)**

김 등 석 (Dongseok Kim)***

곽 우 정 (Woojung Kwak)****

목 차

- | | |
|---------|-------------|
| 1. 서론 | 4. 설문 분석 결과 |
| 2. 선행연구 | 5. 면담 분석 결과 |
| 3. 연구방법 | 6.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이 가진 정보 접근성 향상, 생활복지 구현 등의 목적에 맞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 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별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지역 중심의 운영계획을 마련을 통해 향후 국가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직원과 이용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유연한 개관시간 연장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소기존 정규직에 준하는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을 함께 요구하는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 전국 공공도서관이 특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분리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간 개선 지원 등 인건비 외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and satisfaction of libraries participating in the opening hours support project in order to continue it to meet the purpose of improving information access and life welfare. To this end,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 survey were conducted for those in charge of opening hours for each librar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pening hours support project is a project that needs a strategy that fi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the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perating independently rather than relying on national support in the future through the preparation of regional-oriented operation plan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lexible operating model for opening hours that both employees and users can understand.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organizational operation plan that requires both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long with the rights equivalent to existing regular employees. Fourth, in order for national public libraries in Korea to develop and implement a consistent policy for specific policies and projects,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separate public library operating system in the future. Fif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education and guidelines for the continuity and stable operation of the project, and to activate services other than labor costs, such as support for improving the space for the user's pleasant use.

키워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개관시간 연장 운영, 인식조사

Public Libraries, Extended Support Project Operation for Opening Hours, Opening Hours' Extended Operation, Investigative Study

* 본 논문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실태조사”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aldebaran57@naver.com) (공동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수료(woojung2243@naver.com / ISNI 0000 0004 7706 4758)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0년 1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20년 2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2월 1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1): 115-143, 2020.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1.115>

1. 서론

긴 노동시간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가 활동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노동시간의 단축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촉진시킨다. 우리나라의 여가 활동은 2004년 주5일제 실시를 시작으로 2011년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모든 고용근로의 기본조건이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노동현장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개인에게 보다 자유로운 여가시간의 활용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우선하는 생활문화의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다(도서관연구소 2009).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및 소득수준 증가로 개인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생활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문화 관련 시설의 적극적인 서비스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2006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 발전방안 중 실천 과제의 하나로 도서관 야간개방 확대 등 이용자 편의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도서관의 야간개방 운영을 통해 공공도서관은 생활문화시설로서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국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내 공공도서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7월 기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총 1,073개 관이며, 840개관(약 78%)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233개관(약 22%)은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이 중 716개관(약 68%)이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716개관 중 525개관(약 73.3%), 1,313명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국고

지원을 받고 있다. 2006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양적 규모 확대를 이루어 왔으며, 그 결과 2007년 80개관 435명에서 2019년 525개관 1,313명으로 일자리 지원 수가 증가하였다.

2017년에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도 포함되면서, 관련자들은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9년 도서관연구소에서 진행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의 합리적 운영연구 이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관시간 연장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 및 전반적인 근로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도서관 야간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여 새로운 사업 방향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향후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참여 도서관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이 일반적인 자료이용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에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문헌정보학계의 개관시간 연장에 관한 연구는 2009년에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고, 2013년 이후에는 관련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개관시간 연장에 관한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연구소에서 진행한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모델 개선 방안 연구와 야간대출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 등 현재 운영 중인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도서관연구소(2009)는 공공도서관 주말 및 야간개관의 운영상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상세히 점검함으로써 합리적인 개관시간 운영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결과,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참여하는 도서관은 일 최고 13시간 동안 개관하고 있으며, 일반열람실은 일 최고 18시간 동안 개관하는 곳이 있었다. 연장개관에 대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정규인력 수의 부족과 보상체계의 미흡, 국가정책의 양면성과 이용자 우선주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개관시간 운영모델로 자료열람실과 일반열람실의 운영시간을 분리하여, 비교적 운영부담이 적은 일반열람실의 개관시간을 유지하면서, 자료열람실의 개관시간을 지역사정에

맞게 다양화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심상훈(2009)은 야간대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야간대출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연장개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서비스 요건과 내용의 보완,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을 이용한 야간대출서비스 홍보활동의 강화와 다양화, 운영예산과 전문 인력, 정부 및 자치단체정책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야간연장 운영에 대해 이용자들의 인식이 높고,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박윤정 2013).

윤희윤(2013)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의 공공도서관기준을 대상으로 국내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기준 연구를 하였는데, 개관시간을 봉사대상인구 구간별로 세분하여 각각에 적합하면서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소 개관시간 기준을 설정할 필요하며, 인구구간별로 자료실 주당 최소 개관시간을 제안하고 개관 및 폐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외 연구로는 개관 시간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접근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한 개관시간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Tijs Neutens 2012), Engel(2002)은 Bizzell Memorial Library 24시간 개관에 대한 시범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응

답자 80% 이상이 만족하였으며 공부 및 연구를 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개관시간 연장은 도서관이 아닌 공공문화시설인 박물관, 미술관과 보육기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뉴패러다임센터와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2004)에서 진행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방시간 확대 연구에서는 미술관과 박물관의 관람객 유치를 꾀하는 야간연장개발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중심으로 계약직을 고용하거나 외부 연구소와 컨소시엄 형태의 인력 확장을 제안하였으며, 박물관이나 미술관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행정직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최진화(2010)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시설장, 시간연장 보육교사 및 부모의 인식을 바탕으로 시간연장 보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시간연장 보육은 주로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 영양제공, 기본생활 습관 형성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시간연장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간연장 보육교사에게는 늦은 시간에 근무하는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은 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을 분석하여 성과와 문제점, 향후과제를 도출하였고, 연구를 통해 근무수당지원 시간연장반 확대, 인건비 지원 시간연장반 확대, 지역별 지정(거점) 시설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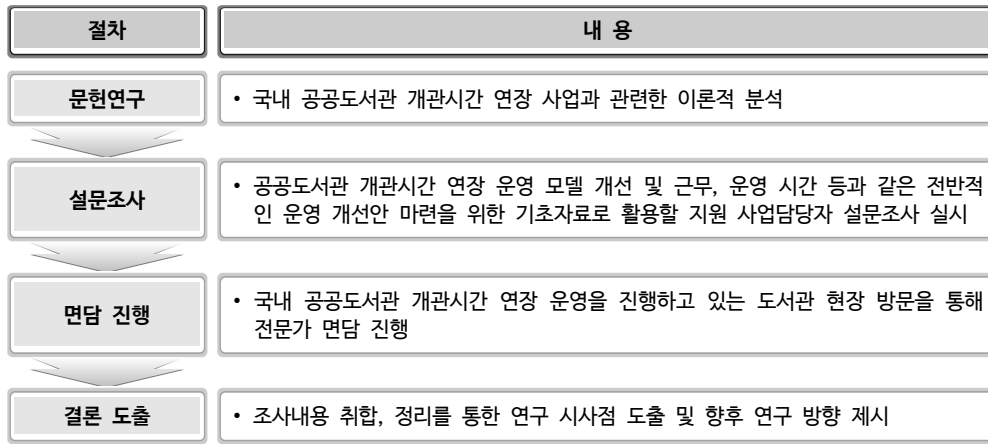
아정책연구소(2012)는 시간연장 보육 이용자의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이용시간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와 같이 지정 어린이집에서 소규모를 보육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일정 규모의 아동을 확보하는 시간연장 보육을 추진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시간연장 보육 규모를 제한하는 모형과 동 일정 규모당 시간연장 보육 거점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는 모형 등을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국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걸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안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과 관련한 이론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문헌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항목을 토대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과 면담 조사 문항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설문 및 면담 문항을 기반으로 사업담당자 대상 온라인 설문 조사와 현장방문을 통한 1대1 면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절차

3.2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실태조사 설문 및 면담 구성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 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조사의 경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운영 도서관에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하였

으며, 선행연구의 분석 과정을 거쳐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28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표 1〉 참조).

사업담당자 설문 문항은 운영 현황, 직원 현황, 사업 만족도 등이 있으며,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실 연장 운영 현황, 열람실 개방 유무와 운영 시간 현황, 개관시간 연장 운영 필요성 등 전반적인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고, 직원 현황은 도서관 근무자 현황을 비롯하여 개관시간 근무자 채용 및 근무 현황, 정규직 전환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관시간 연장 운영 상의 어려움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였다(〈표 2〉 참조).

〈표 1〉 사업담당자 설문조사 응답자

| 구분 | 내용 |
|---------|--|
| 설문기간 | 2019년 9월 30일 ~ 10월 26일 |
| 설문대상 | 2019년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참여 도서관 351개관의 사업담당자 |
| 설문방법 | 온라인 설문지(공문 배포) |
| 설문지 회수율 | 총 142개관(전체 40.45% 회수) |

〈표 2〉 사업담당자 설문 구조도

| 문항 | 설문 내용 | 문항 수 |
|---------------------------|------------------------------|------|
| 일반사항 | 지역 | 3 |
| | 응답자 소속 도서관 설립 유형 | |
| |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참여기간 | |
| 운영현황 | 자료실 연장 운영 현황(개방 유무, 운영 시간) | 9 |
| | 열람실 유무 | |
| | 열람실이 있다면 운영 현황(개방 유무, 운영 시간) | |
| | 휴관일(자료실, 열람실) | |
| | 개관시간 연장 운영 필요성 | |
| | 개관시간 연장 운영이 필요한 이유 | |
| | 야간 운영시 도서관에서 중점을 둔 서비스 | |
| | 야간 자료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 |
| | 야간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횟수 | |
| 직원현황 | 도서관 근무자 현황 | 11 |
| | 공무직 인원 현황 | |
| | 개관시간 연장 운영 인력 | |
| | 개관시간 연장 운영 공무직 근무 현황 | |
| |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근무자 채용 현황 | |
| | 개관연장 근무자의 주 업무 | |
| | 개관시간 연장 사업 근무자 채용 형태에 대한 의견 | |
| |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참여자 정규직 전환 사례 | |
| |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참여자 정규직 전환 현황 | |
| | 사업 참여자 정규직 전환 후 인건비 지급 방식 | |
| 개관연장 근무자 정규직 전환을 고려 않는 이유 | | |
| 사업 만족도 | 개관시간 연장 운영 상 어려움 | 2 |
| |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 그 외 기타 의견 작성 | | 1 |
| 총 계 | | 28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통한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의 사업담당자 7명을 대상으로 총 20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1:1 심층 면담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표 3〉 참조).

문항에는 운영현황,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인사제도, 개선방향, 기타 등이 있으며,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장 운영에 따른 장단점, 연장에 따른 운영 상 어려움 등에 대한 면담 문항을 구성하여 연장 운영현황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사업담당자 면담 내용과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표 3〉 사업담당자 면담조사자 정보

| 구분 | A | B | C | D | E | F | G |
|-------|--------|--------|--------|--------|------|------|--------|
| 근무지역 | 서울 | 경기 | 경기 | 서울 | 서울 | 서울 | 경기 |
| 도서관규모 | 1,932㎡ | 2,100㎡ | 4,457㎡ | 1,574㎡ | 590㎡ | 997㎡ | 3,757㎡ |
| 근무경력 | 7년 | 5년 | 11년 | 8년 | 5년 | 6년 | 10년 |

〈표 4〉 사업담당자 면담 내용과 문항 구성

| 문항 | 설문 내용 | 문항 수 |
|----------------------------|------------------------------|------|
| 운영현황 |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장단점 | 3 |
|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 상 어려움 | |
|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제안 | |
|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 도서관 환경과 사업 참여 | 10 |
| | 도서관 환경에 맞는 사업 참여·운영 | |
| | 도서관 환경 분석의 선행여부 | |
| | 인건비 책정 외 추가적인 예산지원 및 집행 형태 | |
| | 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 관리 | |
| | 사업 실적 관리 | |
| | 인력채용 및 관리·업무분장 | |
| | 채용 시 애로사항 | |
| | 채용 후 인력관리의 어려움, 문제점 | |
| | 조직 내 업무분장 및 애로사항 | |
| 지원 사업의 기간, 지원 기준에 대한 만족 수준 | | |
| 지원 사업의 고용 요건에 대한 만족 수준 | | |
|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인사제도 | 채용 근무자에 대한 복리후생 제도 적용 | 3 |
| | 정규직 전환 제도 활용 | |
| | 연장지원 사업 근무자 채용에 대한 정책적 제안 사항 | |
| 개선방향 |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 | 3 |
| | 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 |
| | 합리적인 개선방향 | |
| | 그 외 기타 의견 작성 | 1 |
| | 총 계 | 20 |

4. 설문 분석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는 총 142명이며, 응답자의 소속 도서관의 설립 유형으로는 지자체 직영도서관 84개관(59.15%), 지자체 위탁운영 38개관(26.76%), 교육청 20개관(14.08%)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사업 참여기간에 있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5년, 8~9년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과반 수 이상의 도서관들이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 도서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도서관이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응답자 특성

| 문항 | 구분 | N | % |
|--------------------|--------------|-----|--------|
| 응답자 소속도서관의 설립유형 | 지자체 직영 | 84 | 59.15 |
| | 지자체 위탁운영 | 38 | 26.76 |
| | 교육청 | 20 | 14.08 |
| 계 | | 142 | 100.00 |
| 사업 참여기간 | 신규(2019년 참여) | 6 | 4.23 |
| | 2~3년 | 23 | 16.20 |
| | 4~5년 | 29 | 20.42 |
| | 6~7년 | 10 | 7.04 |
| | 8~9년 | 24 | 16.90 |
| | 10년 이상 | 50 | 35.21 |
| 계 | | 142 | 100.00 |
| 예산지원 | 국비+지방비 | 138 | 97.18 |
| | 자체운영(국비 제외) | 4 | 2.82 |
| 계 | | 142 | 100.00 |

4.2 사업담당자 운영 현황

도서관마다 야간 개방을 하고 있는 자료실은 크게 성인(일반)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로 나타났으며, 그 중 성인 자료실 3개관을 제외하고 모든 도서관에서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 자료실과 디지털 자료실은 야간 이용률이 낮아, 야간에 운영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야간도서관의 주 이용자층이 직장인, 수험생 등으로 주간시간보다는 퇴근 후 또는 하교 후에 이용하여 성인(일반) 자료실의 개방이 대다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표 6〉 참조).

도서관별로 하절기의 자료실 개관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일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도서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말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도서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절기에도 하절기 운영과 유사하게 평일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

는 도서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말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말에는 하절기와 동절기 상관없이 운영하지 않거나, 연장 운영을 하는 도서관이 평일보다 적게 나타나며, 성인 자료실의 경우 평일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는 도서관이 42.86%로 높게 나타났지만, 주말에는 10.79%로 약 4배 차이가 났다. 절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일은 주로 9시부터 22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7〉 참조).

열람실 보유 현황과 열람실의 연장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4개관에서 열람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열람실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 도서관은 113개관으로, 열람실을 보유한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열람실도 함께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간 도서관 이용자 가운데, 학습을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8〉 참조).

〈표 6〉 자료실의 개관시간 연장 운영 현황

| 구분 | 유 | | 무 | | 계 | |
|------------|-----|-------|----|-------|-----|--------|
| | N | % | N | % | N | % |
| 성인(일반) 자료실 | 139 | 97.89 | 3 | 2.11 | 142 | 100.00 |
| 어린이 자료실 | 64 | 45.07 | 78 | 54.93 | 142 | 100.00 |
| 디지털 자료실 | 60 | 42.25 | 82 | 57.75 | 142 | 100.00 |

〈표 7〉 자료실 유형별 하절기 및 동절기 연장 운영 시간

| 구분 | | | 하절기 | | 동절기 | |
|------------|----|--------|-----|-------|-----|-------|
| | | | N | % | N | % |
| 성인 자료실 | 평일 | 9시~18시 | 0 | 0.00 | 1 | 0.32 |
| | | 9시~22시 | 135 | 42.86 | 126 | 40.00 |
| | | 기타 | 4 | 1.27 | 7 | 2.22 |
| | | 무응답 | 3 | 0.95 | 8 | 2.54 |
| | 주말 | 9시~18시 | 34 | 10.79 | 34 | 10.79 |
| | | 9시~22시 | 34 | 10.79 | 31 | 9.84 |
| | | 기타 | 24 | 7.62 | 24 | 7.62 |
| | | 무응답 | 50 | 15.87 | 53 | 16.83 |
| 어린이 자료실 | 평일 | 9시~18시 | 33 | 10.48 | 33 | 10.48 |
| | | 9시~22시 | 35 | 11.11 | 35 | 11.11 |
| | | 기타 | 17 | 5.40 | 16 | 5.08 |
| | | 무응답 | 57 | 18.10 | 58 | 18.41 |
| | 주말 | 9시~18시 | 38 | 12.06 | 35 | 11.11 |
| | | 9시~22시 | 9 | 2.86 | 10 | 3.17 |
| | | 기타 | 27 | 8.57 | 26 | 8.25 |
| | | 무응답 | 68 | 21.59 | 71 | 22.54 |
| 디지털 자료실 | 평일 | 9시~18시 | 23 | 7.30 | 22 | 6.98 |
| | | 9시~22시 | 49 | 15.56 | 47 | 14.92 |
| | | 기타 | 7 | 2.22 | 8 | 2.54 |
| | | 무응답 | 63 | 20.00 | 65 | 20.63 |
| | 주말 | 9시~18시 | 31 | 9.84 | 30 | 9.52 |
| | | 9시~22시 | 16 | 5.08 | 16 | 5.08 |
| | | 기타 | 19 | 6.03 | 18 | 5.71 |
| | | 무응답 | 76 | 24.13 | 78 | 24.76 |

〈표 8〉 열람실 보유 및 연장 운영 현황

| 구분 | 유 | | 무 | | 계 | |
|--------------|-----|-------|----|-------|-----|--------|
| | N | % | N | % | N | % |
| 열람실 보유 현황 | 114 | 80.28 | 28 | 19.72 | 142 | 100.00 |
| 열람실 연장 운영 현황 | 113 | 79.58 | 29 | 20.42 | 142 | 100.00 |

열람실 연장 운영 시간으로는 계절에 관계없이 평일과 주말 모두 22시까지 운영하는 도서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실의 경우, 평일에는 22시까지 연장 운영을 지속하되 주말에는 18시까지 운영하는 도서관이 많이 나타난 반면, 열람실은 대부분 일주일 내내 23시나 24시까지도 연장 운영하는 도서관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학생들의 경우 하교 후,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 야간 시간을 활용하여 도서관에 개인 학습을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표 9〉 참조).

도서관 휴관일을 분석한 결과, 자료실과 열람실 모두 60일 이상 휴관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자료실의 경우 60일 이상 휴관하는 비율이 52.82%인 반면, 열람실은 33.80%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이 아직까지 자습실, 독서실, 공부하는 공간으로써의 인식이 높고 지역 내 수험생,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아, 자료실에 비해 비교적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휴관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표 10〉 참조).

개관시간 연장 운영이 필요한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평균 3.90으로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개관시간 연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관시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의 71.13%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사업담당자들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개관시간 연장 운영이 필요한 이유로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이용 확대가 평균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민들의 요구로 인해 3.94, 도서관 이용자의 문화적 욕구 충족 3.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개관시간 연장 운영은 시민의 지식 정보 습득 기회 확대 및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파악되며, 지역민들의 높은 요구도로 인해 연장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12〉 참조).

야간 운영 시 도서관에서 중점을 둔 서비스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이 평균 4.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 학습공간 운영 3.56,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

〈표 9〉 열람실 연장 운영 시간

| 구분 | | 하절기 | | 동절기 | |
|----|------|-----|-------|-----|-------|
| | | N | % | N | % |
| 평일 | 22시 | 60 | 42.25 | 64 | 45.07 |
| | 23시 | 34 | 23.94 | 31 | 21.83 |
| | 24시 | 17 | 11.97 | 17 | 11.97 |
| | 기타 | 2 | 1.41 | 1 | 0.70 |
| | 운영안함 | 29 | 20.42 | 29 | 20.42 |
| 주말 | 22시 | 54 | 38.03 | 52 | 36.62 |
| | 23시 | 25 | 17.61 | 24 | 16.90 |
| | 24시 | 16 | 11.27 | 16 | 11.27 |
| | 기타 | 4 | 2.82 | 5 | 3.52 |
| | 운영안함 | 43 | 30.28 | 45 | 31.69 |

〈표 10〉 도서관 휴관일

| 구분 | 휴관일 수 | N | % |
|-----|------------|----|-------|
| 자료실 | 30일 미만 | 9 | 6.34 |
| | 30~39일 | 11 | 7.75 |
| | 40~49일 | 16 | 11.27 |
| | 50~59일 | 21 | 14.79 |
| | 60일 이상 | 75 | 52.82 |
| | 무응답 | 10 | 7.04 |
| 열람실 | 30일 미만 | 26 | 18.31 |
| | 30~39일 | 8 | 5.63 |
| | 40~49일 | 13 | 9.15 |
| | 50~59일 | 22 | 15.49 |
| | 60일 이상 | 48 | 33.80 |
| | 무응답 및 해당없음 | 35 | 24.65 |

〈표 11〉 개관시간 연장 운영의 필요성

| 구분 | N | % | M | Std |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4 | 2.82 | 3.90 | 0.977 |
| 필요하지 않다 | 7 | 4.93 | | |
| 보통이다 | 30 | 21.13 | | |
| 필요하다 | 59 | 41.55 | | |
| 매우 필요하다 | 42 | 29.58 | | |
| 계 | 142 | 100.00 | | |

〈표 12〉 개관시간 연장 운영이 필요한 이유

| 구분 | M | Std |
|------------------------------|------|-------|
| 도서관 이용자의 문화적 요구 충족 | 3.92 | 0.986 |
|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이용 확대 | 4.32 | 0.811 |
| 개인학습자를 위한 도서관 이용 편의 제공 | 3.49 | 1.236 |
| 도서관 야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 3.38 | 1.109 |
| 지역민들의 요구로 인해 | 3.94 | 1.033 |
| 사업 지원을 통한 도서관 재원(예산 및 인력) 확보 | 3.61 | 1.097 |
| 수요계층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제공 가능 | 3.66 | 1.078 |
| 지역 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 3.51 | 1.219 |
| 계 | 3.73 | 1.07 |

3.47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디지털 자료실 등 정보이용 편의 제공은 평균 2.9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자료실 유형 중 디지털 자료실의 야간 개방 도서관 수가 적은 것과 같

은 맥락으로,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야근 개방 시간에 방문하는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야간 이용자들의 주 이용 목적이 자료 대출, 열람실 방문, 프로그램 참여 등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표 13〉 참조).

야간 독서 프로그램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은 73.94%로, 대부분의 도서관이 야간 도서관 운영 시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에 주로 운영하는 도서관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독서, 주제별 강좌/행사, 문화예술, 독서동아리, 지역주민 커뮤니티인 것으로 파악되며, 교육강좌나 취미·문화강좌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4.3 도서관 근무자 및 연장 인력 운영 현황

도서관 주간 근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용역을 제외한 사서직, 행정직, 기능직, 공익, 기타직무 등 1~3명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일 근무는 균등한 직무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말 근무는 사서직·행정직 중심으로 운영) 주말의 경우 사서직과 행정직, 기타 1~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기능직, 공익, 용역의 경우 인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일 사서직 평균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특히 사서직의 경우 평일에는 1~3명의 사서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항이 3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6명 21.13%, 7~9명 19.01%, 10명 이상 18.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1~3명 인력이 전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6명 19.72%, 0명 8.54% 등의 순으로 나타나 평일과 주말 운영 인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5〉 참조).

〈표 13〉 야간 운영 시 도서관에서 중점을 둔 서비스

| 구분 | M | Std |
|----------------------|------|-------|
| 개인학습공간(열람실) 운영 | 3.56 | 1.235 |
| 자료의 대출 및 열람 | 4.43 | 0.738 |
| 야간 프로그램 운영 | 3.47 | 1.076 |
| 디지털 자료실 등 정보이용 편의 제공 | 2.98 | 1.36 |
| 계 | 3.61 | 1.10 |

〈표 14〉 야간에 주로 운영하는 도서관 프로그램

| 구분 | 0회 | | 월 1~2회 | | 월 3~4회 | | 월 5~6회 | | 월 7~8회 | | 월 9회 이상 | | 계 | |
|------------------|----|------|--------|------|--------|------|--------|-----|--------|-----|---------|-----|-----|-------|
| | N | % | N | % | N | % | N | % | N | % | N | % | N | % |
| 문화예술 | 50 | 47.6 | 44 | 41.9 | 9 | 8.6 | 1 | 1.0 | 1 | 1.0 | 0 | 0.0 | 105 | 100.0 |
| 독서 | 45 | 42.9 | 47 | 44.8 | 10 | 9.5 | 1 | 1.0 | 2 | 1.9 | 0 | 0.0 | 105 | 100.0 |
| 주제별 강좌/행사 | 23 | 21.9 | 47 | 44.8 | 29 | 27.6 | 2 | 1.9 | 1 | 1.0 | 3 | 2.9 | 105 | 100.0 |
| 교육 강좌 | 41 | 39.0 | 31 | 29.5 | 24 | 22.9 | 1 | 1.0 | 2 | 1.9 | 6 | 5.7 | 105 | 100.0 |
| 취미·문화강좌 | 62 | 59.0 | 17 | 16.2 | 17 | 16.2 | 1 | 1.0 | 3 | 2.9 | 5 | 4.8 | 105 | 100.0 |
| 독서동아리, 지역주민 커뮤니티 | 37 | 35.2 | 45 | 42.9 | 14 | 13.3 | 3 | 2.9 | 2 | 1.9 | 4 | 3.8 | 105 | 100.0 |

〈표 15〉 도서관 근무 현황

| 항목 | 평일 | | | | | | 주말 | | | | | | |
|-----|----|-------|-------|-------|--------|-------|-------|-------|-------|-------|--------|------|-------|
| | 0명 | 1~3명 | 4~6명 | 7~9명 | 10명 이상 | 무응답 | 0명 | 1~3명 | 4~6명 | 7~9명 | 10명 이상 | 무응답 | |
| 사서직 | N | 1 | 49 | 30 | 27 | 26 | 9 | 12 | 71 | 28 | 8 | 5 | 18 |
| | % | 0.70 | 34.51 | 21.13 | 19.01 | 18.31 | 6.34 | 8.45 | 50.00 | 19.72 | 5.63 | 3.52 | 12.68 |
| 행정직 | N | 14 | 62 | 27 | 9 | 4 | 26 | 32 | 69 | 4 | 2 | 1 | 34 |
| | % | 9.86 | 43.66 | 19.01 | 6.34 | 2.82 | 18.31 | 22.54 | 48.59 | 2.82 | 1.41 | 0.70 | 23.94 |
| 기능직 | N | 41 | 45 | 8 | 1 | 1 | 46 | 47 | 40 | 4 | 0 | 0 | 51 |
| | % | 28.87 | 31.69 | 5.63 | 0.70 | 0.70 | 32.39 | 33.10 | 28.17 | 2.82 | 0.00 | 0.00 | 35.92 |
| 공익 | N | 38 | 47 | 5 | 0 | 2 | 50 | 54 | 32 | 1 | 1 | 0 | 54 |
| | % | 26.76 | 33.10 | 3.52 | 0.00 | 1.41 | 35.21 | 38.03 | 22.54 | 0.70 | 0.70 | 0.00 | 38.03 |
| 용역 | N | 58 | 13 | 5 | 2 | 1 | 63 | 58 | 16 | 2 | 1 | 0 | 65 |
| | % | 40.85 | 9.15 | 3.52 | 1.41 | 0.70 | 44.37 | 40.85 | 11.27 | 1.41 | 0.70 | 0.00 | 45.77 |
| 기타 | N | 34 | 42 | 11 | 5 | 4 | 46 | 33 | 42 | 10 | 5 | 2 | 50 |
| | % | 23.94 | 29.58 | 7.75 | 3.52 | 2.82 | 32.39 | 23.24 | 29.58 | 7.04 | 3.52 | 1.41 | 35.21 |

도서관 근무자의 공무원직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무에 관계없이 무기계약직과 시간선택제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정직과 기능직에 비해 사서직에서 무기계약직을 1~2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응답이 20.4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간선택제의 경우 1~2명의 사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11.27%로 행정직과 기능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16〉 참조).

개관시간 연장 운영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서직의 경우 1~2명이 4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0명이 24.65%, 3~4명이 1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직, 기능직, 공익, 용역, 기타 인력의 경우 한 명도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서 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직무가 야간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에 관계없이 무기계약과 시간선택제 모두 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7〉 참조).

〈표 16〉 도서관 근무자 공무원직 인원 현황

| 항목 | 무기계약 | | | | | 시간선택제 | | | | | |
|-----|------|-------|-------|-------|------|-------|-------|-------|-------|------|-------|
| | 0명 | 1~2명 | 3~4명 | 5명 이상 | 무응답 | 0명 | 1~2명 | 3~4명 | 5명 이상 | 무응답 | |
| 사서직 | N | 57 | 29 | 17 | 10 | 29 | 63 | 16 | 7 | 0 | 56 |
| | % | 40.14 | 20.42 | 11.97 | 7.04 | 20.42 | 44.37 | 11.27 | 4.93 | 0.00 | 39.44 |
| 행정직 | N | 62 | 9 | 7 | 5 | 59 | 72 | 5 | 1 | 0 | 64 |
| | % | 43.66 | 6.34 | 4.93 | 3.52 | 41.55 | 50.70 | 3.52 | 0.70 | 0.00 | 45.07 |
| 기능직 | N | 64 | 13 | 6 | 5 | 54 | 76 | 4 | 0 | 0 | 62 |
| | % | 45.07 | 9.15 | 4.23 | 3.52 | 38.03 | 53.52 | 2.82 | 0.00 | 0.00 | 43.66 |

〈표 17〉 개관시간 연장 운영 인력

| 항목 | | 0명 | 1~2명 | 3~4명 | 5명 이상 | 무응답 |
|-----|---|-------|-------|-------|-------|-------|
| 사서직 | N | 35 | 60 | 17 | 7 | 23 |
| | % | 24.65 | 42.25 | 11.97 | 4.93 | 16.20 |
| 행정직 | N | 62 | 11 | 4 | 1 | 64 |
| | % | 43.66 | 7.75 | 2.82 | 0.70 | 45.07 |
| 기능직 | N | 64 | 12 | 2 | 1 | 63 |
| | % | 45.07 | 8.45 | 1.41 | 0.70 | 44.37 |
| 공익 | N | 68 | 3 | 0 | 0 | 71 |
| | % | 47.89 | 2.11 | 0.00 | 0.00 | 50.00 |
| 용역 | N | 69 | 3 | 0 | 0 | 70 |
| | % | 48.59 | 2.11 | 0.00 | 0.00 | 49.30 |
| 기타 | N | 46 | 36 | 13 | 5 | 42 |
| | % | 32.39 | 25.35 | 9.15 | 3.52 | 29.58 |

〈표 18〉 개관시간 연장 운영 공무원 근무 현황

| 항목 | 무기계약 | | | | | 시간선택제 | | | | | |
|-----|------|-------|-------|-------|------|-------|-------|------|-------|------|-------|
| | 0명 | 1~2명 | 3~4명 | 5명 이상 | 무응답 | 0명 | 1~2명 | 3~4명 | 5명 이상 | 무응답 | |
| 사서직 | N | 66 | 35 | 10 | 2 | 29 | 74 | 5 | 2 | 1 | 60 |
| | % | 46.48 | 24.65 | 7.04 | 1.41 | 20.42 | 52.11 | 3.52 | 1.41 | 0.70 | 42.25 |
| 행정직 | N | 72 | 5 | 4 | 1 | 60 | 77 | 2 | 0 | 0 | 63 |
| | % | 50.70 | 3.52 | 2.82 | 0.70 | 42.25 | 54.23 | 1.41 | 0.00 | 0.00 | 44.37 |
| 기능직 | N | 71 | 9 | 4 | 1 | 57 | 77 | 3 | 0 | 0 | 62 |
| | % | 50.00 | 6.34 | 2.82 | 0.70 | 40.14 | 54.23 | 2.11 | 0.00 | 0.00 | 43.66 |

도서관 근무자 사업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간제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기간제는 2명의 채용 현황이 26.0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간과 마찬가지로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기간제의 채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근무자의 주 업무 및 채용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먼저 주 업무로는 자료대출·반납 및 이용자 응대 서비스 등 자료실 운영 업무가 평균 4.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순 업무보조 3.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간 도서관 참여자들이 1년 단위 계약직이기 때문에 단순 업무

보조나 자료실 운영 이외에 강도 높은 업무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수서 업무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업무담당 비중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관에서 개관시간 연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장기적 전략과 기획이 필요한 업무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기대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담당자 배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20〉 참조).

야간도서관 근무자의 채용에 대한 담당자의 견해를 분석한 결과,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평균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 조건이 필요하다고

〈표 19〉 도서관 근무자 사업 근무자 채용 현황

| 항목 | 0명 | | 1명 | | 2명 | | 3명 이상 | | 무응답 | | 계 | |
|-----------|----|-------|----|-------|----|-------|-------|-------|-----|-------|-----|--------|
| | N | % | N | % | N | % | N | % | N | % | N | % |
| 정규직 | 54 | 38.03 | 4 | 2.82 | 0 | 0.00 | 5 | 3.52 | 79 | 55.63 | 142 | 100.00 |
| 공무직(무기계약) | 31 | 21.83 | 17 | 11.97 | 23 | 16.20 | 29 | 20.42 | 42 | 29.58 | 142 | 100.00 |
| 공무직(시간선택) | 54 | 38.03 | 2 | 1.41 | 2 | 1.41 | 0 | 0.00 | 84 | 59.15 | 142 | 100.00 |
| 기간제 | 21 | 14.79 | 10 | 7.04 | 37 | 26.06 | 30 | 21.13 | 44 | 30.99 | 142 | 100.00 |
| 기타 | 54 | 38.03 | 4 | 2.82 | 0 | 0.00 | 1 | 0.70 | 83 | 58.45 | 142 | 100.00 |

〈표 20〉 근무자의 주 업무

| 구분 | M | Std |
|------------------------|------|-------|
| 단순 업무보조 | 3.35 | 1.447 |
| 자료실 운영(자료대출반납, 이용자 응대) | 4.66 | 0.325 |
| 수서업무 | 2.32 | 1.738 |
| 야간 프로그램 운영 | 2.38 | 1.741 |
| 계 | 3.18 | 1.31 |

〈표 21〉 근무자의 채용에 대한 의견

| 구분 | M | Std |
|---------------------------------------|------|-------|
| 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무자의 채용 조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3.26 | 1.272 |
| 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3.28 | 1.633 |
|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3.49 | 1.103 |
|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3.25 | 1.524 |
| 계 | 3.32 | 1.38 |

생각한다가 평균 3.28, 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무자의 채용 조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3.26,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3.24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도서관에서는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취업과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적절한 채용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4.4 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

4.4.1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전환 이후 인건비 지급 방식

야간 도서관 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 70개관(49.29%)에서 정규직 전환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도서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142개 도서관 중 정규직 전환이 있다고 응답한 70개관만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자 수를 분석하였는데, 2017년 이전

에는 23개관에서 6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18년에는 5개관 24명, 2018년에는 39개관 115명, 2019년 12개관 2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정규직 전환 수가 증가하였으며,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무자 정규직 전환 정책이 생긴 이래 2018년에 가장 많은 수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공무원의 경우 28개 도서관에서 97명의 정규직 전환 현황이 나타났으며, 시간선택제 2개관, 기간제 3개관 등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기타 응답 가운데 처음부터 신규채용 시 정규직 채용을 통해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타났다(〈표 22〉 참조).

정규직 전환 후 인건비는 기존 예산을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다가 평균 89.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관 연장 사업 외 다른 외부 지원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고 5.97%, 기타 의견이 4.48%로 나타났고, 기타 의견: 지자체(시군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해당기관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표 23〉 참조).

4.4.2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자원(인건비 등)의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3.53, 채용에 대한 기존 근무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 3.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 시 예산 편성 문제와 근무자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어, 예산과 정규직 전환 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24〉 참조).

4.5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만족도

야간 근무에 대한 부담이 47.8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야간 운영 시 주간 업무보다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예산 부족 16.90%, 전

〈표 22〉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정규직 전환 현황

| 항목 | 2017년 이전 |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계 | |
|-----------|----------|----|-------|----|-------|-----|-------|----|----|-----|
| | 개관 | 명 | 개관 | 명 | 개관 | 명 | 개관 | 명 | 개관 | 명 |
| 공무직 | 12 | 30 | 5 | 24 | 28 | 97 | 10 | 20 | 55 | 171 |
| 시간선택 | 0 | 0 | 0 | 0 | 2 | 5 | 0 | 0 | 2 | 5 |
| 기간제(무기계약) | 9 | 35 | 0 | 0 | 1 | 9 | 1 | 1 | 12 | 45 |
| 기타 | 0 | 0 | 0 | 0 | 1 | 2 | 0 | 0 | 1 | 2 |
| 계 | 21 | 65 | 5 | 24 | 32 | 113 | 11 | 21 | 70 | 223 |

〈표 23〉 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인건비 지급 방식

| 구분 | N | % |
|---------------------------|----|--------|
| 기존 예산(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예산확대) | 60 | 89.55 |
| 개관연장 사업 외 다른 외부 지원을 통해 지급 | 4 | 5.97 |
| 기타 | 3 | 4.48 |
| 계 | 67 | 100.00 |

〈표 24〉 연장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 (또는) 고려하지 않는 이유

| 구분 | M | Std |
|--------------------------------------|------|-------|
| 정규직 전환 시 개관연장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 | 2.76 | 1.424 |
|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자원(인건비 등)의 마련이 어렵기 때문 | 3.53 | 1.528 |
| 채용에 대한 기존 근무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 | 3.12 | 1.407 |
|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 등 조직 내 업무구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 | 2.92 | 1.366 |
| 정규직으로서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 | 2.76 | 1.399 |
| 계 | 3.02 | 1.42 |

문 인력 부족 16.20%, 야간 운영실적에 대한 부담 1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도서관 운영시간의 탄력적 조정이 26.0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야간 도서관 운영 시 근무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 도서관 운영시간의 탄력적 조정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

었다. 현재는 22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고정시간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 지원 확대가 25.35%, 사업 근무자의 처우 개선 19.01%, 필요성에 대한 환경 분석 15.49%, 지자체 및 교육청의 재정적 지원 확대가 7.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표 25〉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의 운영상 어려움

| 구분 | N | % |
|----------------|-----|--------|
| 예산 부족 | 24 | 16.90 |
| 전문인력 부족 | 23 | 16.20 |
| 높은 업무 강도 | 5 | 3.52 |
| 홍보 부족 | 1 | 0.70 |
| 야간 운영실적에 대한 부담 | 16 | 11.27 |
| 야간 근무에 대한 부담 | 68 | 47.89 |
| 기타 | 5 | 3.52 |
| 계 | 142 | 100.00 |

〈표 26〉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 구분 | N | % |
|------------------------------|-----|--------|
| 야간 운영실적을 도서관 운영평가 항목에 반영 | 2 | 1.41 |
| 국가의 재정적 지원 확대 | 36 | 25.35 |
| 지자체/교육청의 재정적 지원 확대 | 11 | 7.75 |
| 사업 참여 기준 완화 | 2 | 1.41 |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도서관 운영시간의 탄력적 조정 | 37 | 26.06 |
| 개관시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환경 분석 | 22 | 15.49 |
|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근무자의 처우 개선 | 27 | 19.01 |
| 기타 | 5 | 3.52 |
| 계 | 142 | 100.00 |

5. 면담 분석 결과

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집한 면담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정리한 내용을 각 문항별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견을 그룹화하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각 항목별 세부 면담 내용을 기입하였는데, 세부 의견 가운데 동일한 의견은 한 번만 기입한 후 뒤에 빈도를 표기하였으며, 상이한 내용의 경우 표 안에 면담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향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운영 방향성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5.1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대한 담당자 의견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대한 장점을 조사하였다. 면담을 진행한 7명의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주간 시간 동안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 방문 가능하여 다양한 계층의 이용 참여가 가능해진 것을 장점으로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져 도서관이 지역 문화공간으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소 부족한 인력 운영을 대체할 수 있는 야간 계약직원 채용 및 활용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표 27〉 참조).

〈표 27〉 사업담당자의 운영현황-장점에 대한 의견

| 구분 | 의견 |
|-------------------|---|
| 이용계층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운영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평일 낮 시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등 서비스 제공의 범위가 넓어졌음 •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과 주간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도서관 서비스 제공 • 도서관 이용시간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야간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으로 이용자의 참여율을 높임 |
| 프로그램 활성화 및 만족도 상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독서문화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면서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상승 |
| 문화적·교육적 기회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야간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함으로써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써의 입지를 구축함 • 야간 이용계층 확대로 지역사회 정보활용 공간 역할 증대 • 야간문화강좌를 통해 시민의 평생학습, 문화적 욕구 충족 증대 • 개관시간 연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인문학을 통한 교양 함양을 돕고,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 • 야간이용시간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독서저변 확대 |
| 효율적인 인력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소 부족한 인력 운영을 대체할 수 있는 야간 계약직원 채용 및 활용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인력 운영에 도움 |
| 일자리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 개관시간 연장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지속 고용하여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

사업담당자들 면담을 통해 개관시간 운영의 단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력 부족 및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이용자 수에 비해 근무자 수가 적고 주간 담당자 업무를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이 부족하나, 야간 근무의 특수성과 처우 문제 등으로 인해 전문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정적 이용자 및 사업 목적과 다른 운영도 운영의 어려움 중 하나로 조사되었다.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하는 목적이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문화향유 기회 확산인데, 야간 이용을 하는 이용자층이 고정적이며, 학습을 위한 열람실 이용 목적인 이용자가 다수여서 야간 도서관 운영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참조).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했을 때 장점이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일자리 창출, 이용계층의 확대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단점은

로 인력 부족과 고정적인 이용자층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 보완과 서비스 방향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표 29〉 참조).

또한 개관시간 연장 운영의 어려운 점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인력, 예산, 이용자 수, 안전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나 인건비 상승으로 국비 대비 지방비 비율이 높아져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나타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인력 채용 자체에 어려움으로 인해 주간 시간 근무자가 야간시간까지 대체 근무를 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여 문화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 재배정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원만한

〈표 28〉 사업담당자의 운영현황-단점에 대한 의견

| 구분 | 의견 |
|-----------------|---|
| 인력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의 부족으로 주간 근무자의 잦은 야근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 • 야간시간 종합자료실, 일반열람실 개방과 함께 야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에 따른 진행 인력의 부족 • 야간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은 제한되어 한정된 인원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평일/주말 늦은 시간까지 연장 운영하지만 이에 대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있음 |
| 사업 목적과 다른 운영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학습을 위한 열람실을 새벽부터 야간까지 오랜시간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는 운영방식 등 |
| 전문 인력 채용의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력채용 시 지원하는 근무자의 수가 적고, 지역 도서관의 채용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 |
| 고정적인 이용자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 대상 고정적인 편이라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프로그램이 기획 됨 • 사업 수혜자가 중·장년층 및 노년층에 집중되어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
| 예산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공무직) 채용으로 인해 지방비 예산 부담이 가중 |

〈표 29〉 사업담당자의 운영 상 어려움에 대한 의견

| 구분 | 의견 |
|--------------------|--|
| 인력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자료실 운영 및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 부족(4건) • 자료실 및 프로그램 운영 담당직원의 야간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
| 예산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기획/운영의 어려움 • 공무원 근무자(무기계약)의 지속적인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국비 대비 지방비의 비율이 높아짐 |
| 안전보장의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자, 취객 등의 이용자로 인한 야간 근무에 대한 안전보장의 어려움(2건) • 근무자 및 이용자의 안전 귀가 문제 |
| 예산 지원에 대한 방침 마련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재배정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원만한 예산 집행이 어려움 |
| 이용자 수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지자체 공공도서관 증축 및 개관, 작은도서관 증대로 인한 야간 이용률의 감소 |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 운영으로 인한 근무자 귀가 문제와 노숙자, 취객 등의 방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며, 예산 재배정 일시가 미뤄지거나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 외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 중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야간 도서관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과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용개선 요청 사항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2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5.2.1 도서관 환경에 맞는 사업 참여와 운영에 대한 의견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참여를 위한 도서관 환경 분석의 선행여부가 이루어졌는지 조사한 결과, 현재 야간 개관에 대한 인식이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어, 환경 분석을 통한 개관연장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그러나 도서관 환경 분석을 통한 지역 수요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제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 담당자들은 현재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에 새로운 공공도서관의 건립 및 재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및 이동에 따른 이용자 변화 양상을 기반으로 한 야간 이용 방안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운영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0〉 참조).

5.2.2 예산 집행 및 사업 실적 관리에 대한 의견

인건비 책정 외 추가적인 예산지원 및 집행 형태를 조사한 결과, 별도의 예산 지원 부재에 따른 자체 예산 사용 및 공모사업을 통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야간운영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 관리 인력 및 계획은 없으며, 열람실 업무 담당자가 시설 관리

〈표 30〉 사업담당자의 도서관 환경에 맞는 사업 참여와 운영에 대한 의견

| 구분 | 의견 |
|------------------------------|---|
| 지역주민 이주 및 신규도서관 건립에 따른 이용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이 위치한 인근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이 이주하고 도서관 인근 지역에 신규 공공도서관이 개관한 영향으로 야간 시간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분산되며 도서관 자료실과 열람실 이용 실적이 감소(2건) • 인근 지자체 공공도서관 증축 및 개관, 작은도서관 증대로 인한 야간 이용률은 감소 |
|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이용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지역 개발로 인한 신규아파트단지 입주 및 직장 증가로 야간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 프로그램 참여 및 만족도 상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만족도와 참여율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이용자 만족도가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음 • 야간 인문학 강좌는 교양강좌로 정착되어 많은 이용자가 참여 |
| 기타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은 제한되어 한정된 인원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를 함께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도서관에서는 별도의 열람실 관리 직원을 두고 있으며, 야간 운영 시 도서관 내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고, 야간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 지구대의 긴급 출동할 수 있는 경비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 실적 관리를 조사하였는데, 이용자 및 대출현황, 참여자 통계 집계 시 주간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야간 대출/반납 및 이용자 방문에 대한 사항, 문화프로그램 참여자를 주간과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3 사업 참여자 채용의 애로사항 및 인력 관리에 대한 의견

야간도서관 근무자 채용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로 인한 전문인력 확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근무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근무조건으로 타 계약직에 비해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우며, 기존 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

는 무기계약 직원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어, 계약직의 추가 채용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표 31〉 참조).

또한 야간도서관 채용 시 인력관리의 문제를 조사한 결과, 채용된 근무자의 고용불안 및 중도 퇴사로 인해 업무공백이 자주 발생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 직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졌는데, 야간도서관 근무자의 잦은 퇴사 문제로 인해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주간 근무자 또는 소수의 야간 근무자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조직 내 업무분장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고른 업무 분장을 통해 직원 전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하나 소수의 인원이 자료실 운영을 맡아야 하며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의 비중을 늘릴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계속적 참여가 가능하나 고용 불안과 불만족스러운 처우로 인해 장기 근무자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질 높은 인력을 고용하여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표 33〉 참조).

〈표 31〉 사업담당자의 채용 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 구분 | 의견 |
|----------------------|--|
| 낮은 처우로 인한 전문인력 확보 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경력을 가진 전문성 있는 사서를 채용하고 싶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부족한 복리후생으로 인해 모집이 안되는 경우가 많음 • 타 계약직과 인건비 격차(생활임금 미적용)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움 • 야간 근무시간에 대한 비선호도 및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전문직 채용이 어려움 |
| 지속적 인건비 상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계약 지원의 지속적인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

〈표 32〉 사업담당자의 채용 시 인력관리의 문제에 대한 의견

| 구분 | 의견 |
|-------------------------|--|
| 고용 불안으로 인한 잦은 퇴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거나 다른 이직의 기회가 있을 경우 잦은 입/퇴사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신규직원의 재교육 등으로 인한 인적/시간적 경제성이 떨어짐 • 채용된 근무자의 고용불안 및 중도 퇴사로 인해 업무공백이 자주 발생(2건) |
| 주간 직원 및 소수 야간 직원의 업무 과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 및 일요일에도 22시까지 도서관을 개방 운영하게 됨으로써 직원의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인력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필요(2건) • 잦은 퇴사로 인해 비중있는 업무를 맡기지 못해 정규직(주간) 근무자의 업무부담이 가중 |

〈표 33〉 사업담당자의 조직 내 업무분장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 구분 | 의견 |
|---------------------------|---|
|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해 주요 업무 배분 불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른 업무 분장을 통해 직원 전체의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하나 야간 시간에는 소수의 인원이 자료실 운영을 맡아야 하며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의 비중을 늘릴 수가 없음 • 상대적으로 주간 근무자에 비해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자료실 운영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3건) |
| 고용 불안으로 장기 근무자 부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정규직이 아니라는 인식과 고용에 대한 불안감, 열악한 근로환경 및 복리후생 등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는 직원의 거의 없음 |

지원사업의 기간과 지원 기준에 만족하는지 의견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자료실 운영과 문화프로그램 병행을 3명의 인력만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 사업의 고용 요건에 대해서는 주 40시간 근무는 일반적이나, 시간적 특수성을 고려한 인건비 증가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5.3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인사제도 및 정책 제안

채용 근무자에 대한 복리후생 제도가 적용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사업비 내 한계로 4대 보험, 퇴직금 외 특별한 복리후생 제도 마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 정원 증가가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도서관

근무자의 고용 안정 및 업무 동기 부여 등의 이유로 정규직 전환과 도서관 정규직 정원의 증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공무원으로 전환 시 총액임금제로 인한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위탁 도서관의 경우 운영 주체인 지자체의 의지가 정규직 전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사서 충원, 법정 사서 수 확보 등과 같은 인력부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기존 인력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정규직 전환의 시행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의견이 나타났다(〈표 34〉 참조).

사서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속 근무가 가능한 안정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건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비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견으로 인력 채용에 대한 일괄된 운영 지침이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다(〈표 35〉 참조).

5.4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현재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는데, 크게 지원 규정에 따른 운영 문제 발생, 사업 참여자를 위한 임금 및 교육 기회 확대 방안 필요, 그 외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에 따른 인건비 불용 예산이 발생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지원 및 예산 증액 필요, 유연한 사업 운영 필요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표 36〉 참조).

근무자 채용에 대한 정책적 제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지원 예산 및 지원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지원 예산의 사전 통지가 되어 있지 않아, 매년 초 지원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사

〈표 34〉 사업담당자의 정규직 전환 제도 활용에 대한 의견

| 구분 | 의견 |
|--------------------------------|---|
| 고용 안정 보장 및 동기 부여를 위한 정규직 전환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여 도서관이 전문성을 갖춘 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야간시간을 활용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 근무자 고용의 안정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은 필요(2건) |
| 예산 부족에 따른 정규직 전환 제도 시행 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를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입장에는 구청에서 정규직 정원을 늘리고 이에 대한 인건비(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지 않는 이상 늘리기 쉽지 않음 도서관 운영 주체(교육청, 지자체)의 야간사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 자치구, 개별 도서관 단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정원 조정, 예산 확보 등의 현실적 부담이 있음 무기계약직의 경우 지속적인 고용 시 연차수당, 급여인상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지방비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 |
| 단기간의 정규직 전환의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 |

〈표 35〉 사업담당자의 근무자 채용에 대한 정책적 제안 사항에 대한 의견

| 구분 | 의견 |
|-------------|--|
| 사업 지원 개선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특성상 예산의 지원 및 규모가 인력 채용 및 야간 운영(자료실, 문화프로그램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 지원 단위를 늘리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지원이 필요(2건) • 사서의 야간근무의 특성상 잦은 이동이 발생하여, 도서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정규직 전환 후에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 국비 상향 조정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지속적인 고용에 따른 인건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방비와 국비의 매칭비율이 50%가 될 수 있도록 국비 상향 조정 필요 |
| 운영 지침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력 채용에 대한 일관된 운영 지침 필요(2건) |

〈표 36〉 사업담당자의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 구분 | 의견 | |
|------|--------------------------------|--|
| 문제점 | 지원 규정에 따른 운영 문제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사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됨 •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국비지원 중단 시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움(3건) |
| | 사업 참여자를 위한 임금 및 교육 기회 확대 방안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자들의 개인 역량 개발 및 재취업을 위해 주기적으로 외부교육 참여의 기회를 주었으면 함(2건) • 근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2건) |
| | 기타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에 따른 인건비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 요구사항 |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지원 및 예산 증액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2건) • 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함(2건) •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며, 운영인력의 무기계약 채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상향 지원 요청 |
| | 유연한 사업 운영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추가 인력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사업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함 |

업 시행 이후 진행이 되고 있어 사업비를 지출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혼란을 줄이고, 현재 지원 기준에 도서관 규모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한 평가 항목을 새로 개설해 지원 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표 37〉 참조).

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방비 매칭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사업을 규정하지 않고 다양한 지원방식을 모색하고 지속적이고 다각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도서관의 안정적인 야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표 37〉 사업담당자의 근무자 채용에 대한 정책적 제안 사항에 대한 의견

| 구분 | 의견 |
|-----------------|--|
| 지원 예산의 사전 통지 필요 | •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시작되는 연초에 지원예산이 확정·통보되어 계약직 인력수급, 사업 소요 비용 산출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이전에 예산이 확정되어 공지되는 것이 필요 |
| 지원 기준의 다양화 필요 | •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비 책정 시, 자료실 수 및 대출권수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서관 규모와 이용률, 활발한 야간 문화 프로그램 실시, 자치구의 자립도 등 다양한 기준을 감안하여 책정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될 것 |
| 사업 실적 책정 변화 필요 | • 사업에 대한 이용실적은 분기별로 정산하지만, 고용현황은 6개월 단위로 변경되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함 |
| 지속적이고 유연한 지원 필요 | • 개관시간 연장 인력 채용 및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안정적 예산의 지속적 지원 필요(2건) • 단순히 지방비 매칭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사업을 규정하지 않고 다양한 지원방식을 모색하고 운영의 유연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6. 결론 및 제언

6.1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통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과 면담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논의 및 제안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하는 기관은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개관시간 연장 운영의 유연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등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지역 중심의 운영계획을 마련을 통해 향후 국가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2018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야간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전담인력을 배정하기 어렵고, 야간 업무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주간 근무자의 추가 근무 등을 통해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관시간 연장 근무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주간 근무자의 장시간 근무 및 초과 근무에 대한 부담은 개관시간 연장운영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되었으며, 지역주민의 편의성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장시간 운영함으로써 도서관 본래의 역할에 대한 의문과 직원의 업무부담,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자율적인 자치행정 범위에서 도서관과 지역주민의 원만한 소통을 바탕으로 도서관 개방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직원과 이용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유연한 개관시간 연장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소수의 인력만 도서관에 남아 운영되는 현재의 개관시간 운영 방식은 야간 근무자

및 이용자에게 위기상황이나 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아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무자와 이용자가 야간에도 안심하고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무자 중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기존 근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 부담으로 등으로 불성실한 자세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 조직 운영의 어려움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 정규직에 준하는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을 함께 요구하는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무자의 경우 업무평가 및 성과급에 대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직무에 대한 책임에서 부담이 적고 자유롭기 때문에 방만한 태도로 근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규직 전환 인력이 사서로서의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의무 교육을 진행하여 도서관의 보조적 인력이 아닌 전문적 소양을 갖춘 직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 같은 사업과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운영기관(지자체와 교육청)에 따라 정책 수행에 대한 시선과 추진방향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전국 공공도서관이 특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분리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단순히 지방비 매칭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사업을 규정하지 않고 다양한 지원

방식을 모색하고 운영의 유연함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간 개선 지원 등 인건비 외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6.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도서관 야간 운영 및 서비스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 등 다양한 방식의 실증조사를 수반하였으므로, 향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재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이 지역주민의 편의성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장시간 운영함으로써 도서관 본래의 역할에 대한 의문과 직원의 업무부담,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자율적인 자치행정 범위에서 도서관과 지역주민의 원만한 소통을 바탕으로 도서관 개방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직원과 이용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유연한 개관시간 연장 운영 모델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 연장 운영에 대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참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의

활성화와 운영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고용노동부. 2017.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 등 안내』. [online] [cited 2019. 9. 10.]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1508153889334>
- [2] 뉴패러다임센터,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2004.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서비스 강화와 고용창출 방안 연구』. 서울: 뉴패러다임센터.
- [3] 도서관연구소. 2009.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4]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09. 『2009년 도서관정책 세미나 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 방안』.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5]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세부내역』. [online] [cited 2019. 8. 7.] <<http://www.mcst.go.kr>>.
- [6] 박윤정. 2013.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7]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 『시간연장보육 이용실태 및 수요 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8] 심상훈. 2009. 『공공도서관 야간대출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9] 윤희윤, 심상훈. 2010. 공공도서관 야간대출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보관리연구』, 41(1): 1-22.
- [10] 윤희윤. 2013. 국내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기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1): 49-71.
- [11] 최진화. 2010. 『시간연장 가정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이대학교 행정대학원.
-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시간연장보육 활성화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13] Anderson, I. T. 1933. "Library hours: open to public: fining system."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22(1): 31.
- [14] Engel, D., Womack, K. and Ellis, U. 2002. "Opening a library 24 hour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36(4): 95-108.

[15]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9. 7. 29.] <<https://www.libsta.go.kr>>

[1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일자리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9. 7. 29.]

<<https://www.mcst.go.kr/web/mws/index.jsp>>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7. *Guidelines for transitioning to full-time work before part-time work in the public sector*. [online] [cited 2019. 9. 10.]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1508153889334>
- [2] New Paradigm Center and Center for Arts & Cultural Management, 2004. *A Study on Strengthening Public Service and Job Creation in National Museums and Art Galleries*. Seoul: New Paradigm Center.
- [3]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2009. *A Study on the Reasonable Management Plan of Public Library Opening Hour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4]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9. *2009 Library Policy Seminar-Local Public Library Service Expansion Plan*.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5]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 *2018 Extension of Opening Times for Public Libraries*. [online] [cited 2019. 8. 7.] <<http://www.mcst.go.kr>>
- [6] Park, Yun-Jeong, 2013. *A Study on the Users' Perception of 'Public Library Opening Hours Extension'*. M.A. Thesis, Major in Life lo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R.
- [7]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2. *Survey on the Use and Demand of Time Extended Childcare*. Sejong: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8] Sim, Sang-Hoon, 2009.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s and Improvement Schemes for Evening Circulation Service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M.A.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K.R.
- [9] Yoon, Hee-Yoon and Sim, Sang-Hoon, 2010. "Analysis and Improvement Schemes for Evening Circulation Service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1(1): 1-22.
- [10] Yoon, Hee-Yoon, 2013.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Public Library Opening Hours in Foreign Countries and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1): 49-71.

- [11] Choe, Jin-hwa. 2010. *Reality and Improvement Proposals for Time-Extended Nurturing Facilities: Centered on Those of the Gimhae Area*.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AYA University, K.R.
- [12]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 *Study on the effect analysis of time extension childcare teacher's allowance and pilot plan*. Sejong: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15]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online] [cited 2019. 7. 29.] <<https://www.libsta.go.kr>>
- [16]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nline] [cited 2019. 7. 29.] <<https://www.mcst.go.kr/web/mws/index.jsp>>

